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

●보낼곳: 우 110-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 
●FAX: (02)737-0697/8  
●PC통신: 인터넷바다피어  
http://www.buddhapia.com/mem/namaum

## 법공양 페이지

# 잘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주인공의 몫

### 15면에서 계속

새로운 생각으로 자꾸 간섭하기 때문  
= 자동으로 될 일도 힘을 잃고 멈추는  
= 아닐까?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 
= 잘되는 잘못되든 말것이면 군말없이  
= 회개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.  
= 그렇게요. 그렇게 '나'라는게 불  
= 질 않는 겁니다. 본래 고정됨이 없  
= 이 풀이니까 '나'라는게 없지만 사람  
= 은 일거수 일투족에서 나, 나의 것이라  
= 는 생각에 아주 찌들어서 그런 생각에  
= 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자랍니다.  
= 그래서 애초부터 '나'가 붙지 않게 하  
= 면 잘되는 것도 주인공에 맡기고 안되  
= 는 것도 주인공의 몫으로 돌려서 놓고  
= 가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'간섭을 없애  
= 는 것도 주인공이 알아서 하라'고 놓  
= 이 또 놓고, 그렇게 거들거들 놓고 맡겨  
= 주지요.

### 주인공 발현을 바라는 이유

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주서  
= 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 
= 저의 형은 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  
= 는데 형이 말하길 '하루에 아무 때  
= 도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주인공이 발  
= 현되어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 
= 지고 마음으로 되돌리는(참선이라고나  
= 까요) 그러한 것을 시간을 내어서 꼭  
=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'라고 말하곤 합  
= 니다.

지역법회에서 가장 권하는 것이라고  
= 며 저에게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한  
= 고 권장 합니다.  
=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존재하  
= 는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주인공이 있음  
=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인데 굳이 마음  
= 으로 주인공이 발현되기를 바라며 마  
= 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  
= 인지요?

자연의 모든 것을 보고 주인공이 있다  
= 확인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  
= 에 그러한 것이지요?

= 그렇게 '아는 것'과 '맛을 보는  
= 것'은 다르지요.  
= 이론으로야 온갖 경전말씀도 있으니 웬  
= 한 사람이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? 그러  
=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.  
= 치가 그러한 알더라도 확연치 않으면  
= 론따로 행동 따르기가 되고 말지요. 그건  
= 해가 아니라 알음알이 일 뿐입니다. 이  
= 는 깨닫고 실천하는데 있습니다.  
= 가령 중국잡역가서 메뉴판을 보고 무  
= 무슨 요리를 파는지 금새 알았다해도  
= 어보아야 제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?그

래야 그 집 짜장면이 맛이 있다 없다라  
= 고 말할 수 있고 다시 먹으로 갈 수 있  
= 지 그 집에서 짜장면을 파느냐 안파느냐  
= 만 알아서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?  
= 스스로 확신이 섰다면 스스로 증명을  
= 해 보시기 바랍니다.

### 욕하는 것 같아 법회 못갑니다

스님,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 
=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리  
= 겠습니다.  
= 무엇이나 하면 법회에 가는 일입니다.  
= 법회에 가서 스님 말씀을 듣고 싶으나  
= 자꾸 그곳에 오신 신도님들이 왜 저렇게  
= 인상을 구기고 있나? 기분 나쁘게... 저  
= 밖에 모르는 놈이다...등등으로 저를 욕  
= 하는 것 같아... 가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 
= 주인공 너만이 편하게 할수 있잖아하고  
= 말하고 있지만 왠지 주인공의 응답이 없  
= 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난 법회를  
= 보고, 현대불교신문에 실린 스님의 글도  
=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꼭 마음  
= 편히 스님의 법문을 남이 욕한다는 생각  
= 없이 듣고 싶습니다. 이것을 고칠려고 신  
= 경정신과에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... 별  
= 로 소용이 없었습니다. 전생을 기억해서  
= 고친다는 곳에 한번 가보고도 싶지만 현  
= 대불교신문에서 스님이 어느 독자의 그  
= 것에 대한 말에 그렇게 과거에 매달려서  
= 되겠습니까?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저  
= 주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왠지 과거에  
= 지은 것이 현재에 나오는 것이라는 스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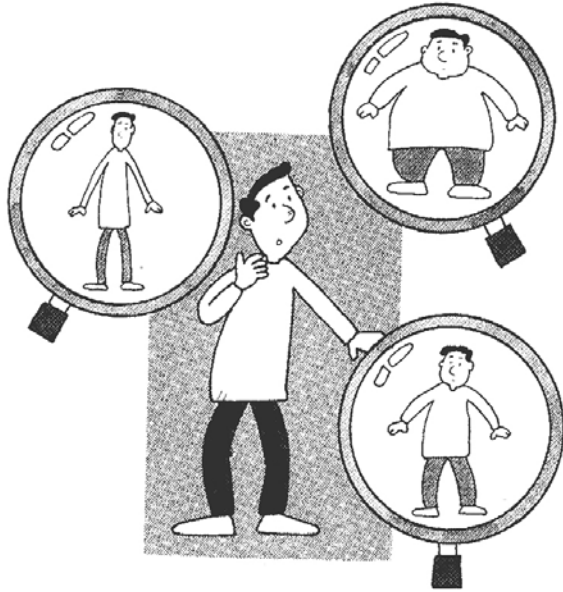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## 내 잣대로 재지 말고 상대방 입장 돼보세요 모든게 업식 놀음이니 나온자리 되 놓아야

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도 같아 한  
= 번 가보고도 싶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주  
= 인공이 하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나이지  
= 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. 참... 전에 스님  
= 진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... 그때는 그마  
= 을이 너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야 하셔서  
= 제때에 생각하기에 나의 진실이 아니라  
= 는 말도 같고 나의 마음을 여윈 한마음  
= 이라는 말도 같아서 '한마음 말입니까?'  
= 했더니 스님께서 '그렇지' 하셨습니다. 그  
= 럼 한마음이 나타날때까지 기다려야 한  
= 다는 말씀입니까? 속지 말고라고도 하셨는  
= 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  
= 씩하신 '주인공, 너만이 할수 있잖아?'라  
= 는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. 말

을 하다보니 두서가 없어 되었습니다. 이  
= 메일 보내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라 믿  
= 으며... 병이 낫던 안팎만 맡기겠습니다.  
= 스스로 병이라고 규정지으면 병  
= 일테지만 주인공에 놓고 맡기고 사  
= 신다면 병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.  
=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걱정  
= 하신데 눈 달린 사람들이 제 기쁨  
= 그렇게 저렇게 볼려면 보고 말려면 말했  
= 지요.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었습니  
= 까. 설사 이목구비가 번듯하지 않더라도  
= 생긴대로 보이겠지요. 그런데 무얼 걱정  
= 하십니까? 보고싶은 대로 보라고 내 버  
= 려두고 스스로는 그런 걱정을 놓고 관하  
= 기만 하면 됩니다.

주인공에 놓고 주인공이 어떻게 이끄  
= 는가 관하면 그뿐 아닐 까요. 전생을 말  
= 씩하시는데 과거의 것이 몽땅 현재의식  
= 에 실려 있으니 어디서 따로 전생을 찾  
= 으겠습니까? 굳이 찾으려거든 현재의 내  
= 속에서 찾으세요. 그것도 아니겠거든 몽  
= 땅 놓고 '주인공, 너 알아서해!' 하면서  
= 나는 다만 매이지 말고 주뉘뉘 걸어가  
= 시면 됩니다.

### 목이 돌아가서 불편합니다

저는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계속  
=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 
= 몸이 관하여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.  
= 그전에 군대에 갔다올때까지는 처러자

세나 거울을 보고 있을때, 남과 대화  
= 할때도 턱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.  
= 간 좌우로 흔들립니다)  
= 사진을 찍을때보면 사진사가 약간 얼  
= 굴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목이 약간 정면  
= 에서 틀어 진것으로 사료됩니다.  
= 계속 관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은 오래  
= 도록 고쳐지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어  
=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 
= 그리고 요즈음 외서는 컴퓨터등 정면  
= 을 보고 있으면 사뭇뜨기처럼 자꾸 오른쪽  
= 쪽으로 눈알이 치우치는 느낌을 가지고

###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해서 한번 굴러 놓으면 차차 둥글어져 둘로 안보게돼

있습니. (근일중 처가에 조카(장애아  
= 동)가 있는데 사뭇로 눈을 뜨고 어려운  
= 모습을 짓기에 마음이 격하였습니다)  
=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지요! 가르침  
= 바라옵니. 항상 감사하옵니...  
= 전에 목이 자꾸 돌아간다면 비스  
= 한 일로 고민하는 분이 찾아왔더  
= 습니다. 그래서 그랬죠. 날 더러 어떻게  
= 좀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나온 자리에서  
= 되 맡기는 도리를 실천해 보라고요.  
= 모든게 다 업식 놀음이고 그런 중에서도  
= 다 업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나  
= 온자리에 되 놓아야 전지에 녹음 되었던  
= 것이 지워지듯이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  
= 까? 그러나 간성으로 해서 는 아무리해도  
= 다 업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나  
= 온자리에 되 놓아야 전지에 녹음 되었던  
= 것이 지워지듯이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  
= 까? 그러나 간성으로 해서 는 아무리해도

모든게 다 업식 놀음이고 그런 중에서도  
= 다 업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나  
= 온자리에 되 놓아야 전지에 녹음 되었던  
= 것이 지워지듯이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  
= 까? 그러나 간성으로 해서 는 아무리해도

### 마음껏 타락해 보고 싶습니다

우리 공부해 한다고 하여도 말  
= 만 앞설뿐 행동은 세속적 욕망을  
= 향하여 치달고 있습니다.  
=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욕망도  
= 주인공이 만들어냈으니 주인공 너의 책  
= 임이다하고 책임전가를 하고 마음껏 타  
= 락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

### 협찬 주인공

본래 주인공 따로 나 따르가 아닙니다.  
= 그러기에 '나' '내' '내 것' '내 할' '내  
= 는' 없고 주인공으로 하나되어 살라는 것  
= 입니다.  
= 어머니 중풍 악화돼 걱정돼요  
= 저는 공부에 관한 질문보다 사적  
= 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의  
=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자리에  
= 누워계시는데 세 번의 뇌수술을 받고도  
= 아직까지 쾌차되어서 없이 오허려 지금  
= 증상이 악화되어서 말을 못하십니다. 어  
= 떻게 하면 어머니의 건강이 완쾌될 수  
= 있는지요.  
= 나는 의사가 아니예요. 의사는 아  
= 니지만 마음 도리를 안다면 몸 속  
= 의 중생들의 의식이 본인 마음에 따라주  
= 고 작용을 해 주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 
= 어떠한 병이든지 내가 낫고자 한다면 안  
= 되는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. 병 뿐만  
= 아니라 일체만법이 다 그래요. 그런데  
= 환자는 알 수 없으니 가설이 되어있지  
= 않았던 말입니다. 그러니까 학식이 열심  
= 히 공부하세요. 어머니라는 가설이 되어  
=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 
= 내 주인공만이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 
=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 
= 환자가 먹는 음식도 신경을 써서 간호하  
= 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

### 생활속의 불교 191

## 소가 될 양이면 코뚜레 안뚫린 소가 되라.

남의 따귀를 한 대 때렸으면 언젠가는 그  
= 따귀 한 대가 되돌아온다. 남에게 밥 한 그  
=릇을 주었으면 언젠가는 내게 밥 한 그릇이  
= 되돌아온다. 그런 되갚음은 철칙이다. 철두  
= 철결한 법칙이다. 무식코 떨어뜨리는 생각  
= 하나하나도 결과가 없는 법은 결코 없다.

업이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마음속에  
= 쌓이는 게 아니다. 그것은 한생각을 따라  
= 일어나 채곡채곡 쌓여진 것이다. 본래 주인  
= 공 자리는 공하여 업이라는 실체가 없고 그  
= 림으로써 업이 붙을 자리도 없건만 공한  
=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놓을 줄 모르고 생각  
= 으로 지어서 제 등짐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.  
= 그저 자기가 자기의 줄만 알고 '나' '나의  
= 것' 하면서 쌓아 올려 놓고서는 업에 치이고  
= 윤회에 말리고 하는 것이다. 말하자면 제 손  
= 으로 제 살을 갈라가 풀어 놓고는 아프다 하  
= 고 약 발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나 같다.

불성이 있기에 만법에 응응이 되는 것이  
= 다.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에 따라  
= 서 자동적으로 원리 자체가 응응을 하고 사  
= 람의 행이 어떠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원  
= 리가 응응하는 것이다. 사람이 되었다. 벌레  
= 가 되었다. 소가 되었다. 이러한 것도 자동적  
= 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 
= 그러는 것이다. 그러기에 마음이 중요하다.

세간을 이해하는 데는, 원인 없이 과과가  
= 있을 수 없다는 엄정한 인과 법칙처럼 정  
= 확한 것이 없다. 동시에 인연 법칙을 아는

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다.

오직 부처님만이 인과법 위에 영원의 길  
= 이 드넓게 열려 있음을 보시고 가르치셨다.  
= 인연의 법칙은 곧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 
= 가르침이다.

자기가 먹은 것에 걸린다. 자기가 행한 것  
= 에 걸린다. 자기가 말한 것에 걸린다. 육체  
= 에 걸리고 삼독심으로 또 걸리고 하니 그  
= 량이 쌓이고 쌓인 것이 어디로 가겠는가. 그  
= 러니까 코뚜레 뚫린 소가 되어 가지고 음  
= 음에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을 다 되풀이하  
= 게 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소가 될 양이면 코  
= 뚜레 뚫리지 않는 소가 되라 하는 것이다.

인과는 썩지 않는 씨앗과 같다. 선한 씨를  
= 뿌리면 선과가, 악한 씨를 뿌리면 악과가 온  
= 다. 인과의 씨는 썩지 않고 나고 또 나며 돌  
= 고 또 돈다.

업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한 울만큼의 어  
= 굴도 없다. 그러므로 제 안에 담긴 고를  
= 원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  
=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.

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받는다. 그래서  
= 옛 가르침에 '그릇에 삼복이 꼭 찻는데 어  
= 떻게 자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'고 한 것이다.

반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알  
= 면서 받고,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르

게 받는다.

선업도 업이다. 일단 기록된 이상 그 일력  
= 이 거꾸로 나를 지배하게 된다. 악업은 나쁜  
= 과보를 낳고 선업은 선한 업보를 낳을 뿐이  
= 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  
= 서는 선업과 악업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. 비  
= 유해 보면 둘 다 노예기는 마찬가지이다.  
= 다만 경우는 나쁜 주인을 만나서 갖은  
= 고생을 하는 노예라면 한 경우는 좋은 주인  
= 을 만나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 
= 노예인 것이다.

과거로부터 지고 나온 숨을 채곡채곡 쟁  
= 여 놓는다면 비유하건대 저 달 나라까지 가  
= 기만큼 그렇게 맑고 무거운 것이다.  
= 그것을 질어낸 채로 살고 있으니 억집 등  
= 안 쌓인 노비문서에 짓눌려 사는 꼴이나 다  
=름없다. 그럼에도 자기의 노비문서가 제일  
= 이라고, 그것을 무거운 줄도 모르고 좋다고  
= 애지중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사는 모습인가.  
= 중생들은 그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 장살에  
= 갇히고 천아만하한 벽에 갇힌 것이 어찌 사  
= 는 것이라. 자유권을 갖고 자재롭게 살지  
= 못하면서 타치는 일마다 하나하나에 고달려  
= 지내니 기가 막힐 일도 많고 불이 날 일도  
= 많은 것이다.

수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죄를 지었던 안  
= 지였던,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일을 했던 미  
= 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말미암은 업식  
= 이 뭉치고 뭉친 게 이 욕심이다. 이 욕을 집

수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죄를 지었던 안  
= 지였던,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일을 했던 미  
= 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말미암은 업식  
= 이 뭉치고 뭉친 게 이 욕심이다. 이 욕을 집

게 받는다.

선업도 업이다. 일단 기록된 이상 그 일력  
= 이 거꾸로 나를 지배하게 된다. 악업은 나쁜  
= 과보를 낳고 선업은 선한 업보를 낳을 뿐이  
= 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  
= 서는 선업과 악업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. 비  
= 유해 보면 둘 다 노예기는 마찬가지이다.  
= 다만 경우는 나쁜 주인을 만나서 갖은  
= 고생을 하는 노예라면 한 경우는 좋은 주인  
= 을 만나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 
= 노예인 것이다.

과거로부터 지고 나온 숨을 채곡채곡 쟁  
= 여 놓는다면 비유하건대 저 달 나라까지 가  
= 기만큼 그렇게 맑고 무거운 것이다.  
= 그것을 질어낸 채로 살고 있으니 억집 등  
= 안 쌓인 노비문서에 짓눌려 사는 꼴이나 다  
=름없다. 그럼에도 자기의 노비문서가 제일  
= 이라고, 그것을 무거운 줄도 모르고 좋다고  
= 애지중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사는 모습인가.  
= 중생들은 그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 장살에  
= 갇히고 천아만하한 벽에 갇힌 것이 어찌 사  
= 는 것이라. 자유권을 갖고 자재롭게 살지  
= 못하면서 타치는 일마다 하나하나에 고달려  
= 지내니 기가 막힐 일도 많고 불이 날 일도  
= 많은 것이다.

수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죄를 지었던 안  
= 지였던,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일을 했던 미  
= 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말미암은 업식  
= 이 뭉치고 뭉친 게 이 욕심이다. 이 욕을 집

수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죄를 지었던 안  
= 지였던,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일을 했던 미  
= 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말미암은 업식  
= 이 뭉치고 뭉친 게 이 욕심이다. 이 욕을 집

게 받는다.

선업도 업이다. 일단 기록된 이상 그 일력  
= 이 거꾸로 나를 지배하게 된다. 악업은 나쁜  
= 과보를 낳고 선업은 선한 업보를 낳을 뿐이  
= 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  
= 서는 선업과 악업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. 비  
= 유해 보면 둘 다 노예기는 마찬가지이다.  
= 다만 경우는 나쁜 주인을 만나서 갖은  
= 고생을 하는 노예라면 한 경우는 좋은 주인  
= 을 만나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 
= 노예인 것이다.

과거로부터 지고 나온 숨을 채곡채곡 쟁  
= 여 놓는다면 비유하건대 저 달 나라까지 가  
= 기만큼 그렇게 맑고 무거운 것이다.  
= 그것을 질어낸 채로 살고 있으니 억집 등  
= 안 쌓인 노비문서에 짓눌려 사는 꼴이나 다  
=름없다. 그럼에도 자기의 노비문서가 제일  
= 이라고, 그것을 무거운 줄도 모르고 좋다고  
= 애지중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사는 모습인가.  
= 중생들은 그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 장살에  
= 갇히고 천아만하한 벽에 갇힌 것이 어찌 사  
= 는 것이라. 자유권을 갖고 자재롭게 살지  
= 못하면서 타치는 일마다 하나하나에 고달려  
= 지내니 기가 막힐 일도 많고 불이 날 일도  
= 많은 것이다.

수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죄를 지었던 안  
= 지였던,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일을 했던 미  
= 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말미암은 업식  
= 이 뭉치고 뭉친 게 이 욕심이다. 이 욕을 집

수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죄를 지었던 안  
= 지였던,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일을 했던 미  
= 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말미암은 업식  
= 이 뭉치고 뭉친 게 이 욕심이다. 이 욕을 집

살아서 수없는 생명이 지금 최전하고 있는  
= 데 이 생명체들이 악업 선업으로 동차 천차  
= 만별의 경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. 그러면서  
= 인연 따라 내 앞을 탁막 가로막고 나서니  
=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잠시 잠깐 웃  
= 을 일이 생기고 싸움 일이 생기고 흥했다가  
= 망했다가 하는 것이다.

과거로부터 인연 지어 온 업이 세포 하나  
= 하나. 위장·심장·간장·소장·대장·신  
= 장·척추 등 구석구석에 집을 짓고 소유에  
= 따라 윤회하는데 악업은 악으로만 나가는 반  
= 면 선업은 또 선업으로만 나간다. 그러나 악  
= 이 많고 선이 적으면 마음속에서, 몸 속에서  
= 악의적인 문체가 수없이 솟아 나오게 된다  
= 하던 일이 잘 안되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싫  
= 어하게 하니 그것이 악행의 원인이 것이다.  
= 악행이란 남에게 해를 주는 것만 생각하  
= 기 쉬우나 항상 홀로 보아 남을 원망하여  
= 내 탓으로 돌릴 줄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 
= 내가 괴로운 게 악업의 과보인 것이다.

우리 속에는 악업·선업이 다 들어 있다.  
= 그리고 악업·선업의 의식들은 잘되고 잘못  
= 되고를 모른다. 고로 다스리는 사람의 생각  
= 이 거기까지 미처아니한 같이 따라 준다. 그  
= 래야만이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화할 수 있  
= 고 현실의 재입력을 통해 과거의 업집이 다  
= 무너져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.

협찬 : 김재환